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과 방향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younh@sdi.re.kr

I. 서론

○ 의료관광의 정의

- 의료관광의 정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음. Goodrich(1993)은 “건강관리 시설과 일반적인 관광시설을 결합한 시도” 라고 설명함. Laws(1996)는 의료관광을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떠나는 레저행위” 라고 봄.
-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형외과 수술, 심장수술 등 전문적인 치료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받기 위해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음. 따라서 Gupta(2004)는 수술과 기타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음.¹⁾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레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 의료관광, 고령자 고용

1) 조구현(2006)의 연구에서 재인용

○ 선진국의 의료 고비용과 의료서비스 공급의 제약

-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는 빠르게 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음. 민간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약 4,500만명 혹은 6,000만명이 민간 의료보험 혹은 국가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함.
- 영국과 캐나다와 같이 공영의료제도를 가진 나라의 경우 선택수술 혹은 비응급 치료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간 대기하여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환자는 비용을 절약하거나 혹은 신속한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고 있음.
- 한편 성형수술, 심미치과, 피부관리와 같이 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만이 받았으나 현재 소득증가와 미적 욕구 때문에 중산층들도 관심을 갖고 있음. 審美 의료서비스는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저렴한 비용을 얻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고 있음.

○ 외국의 의료서비스의 국제교역화

- 싱가포르, 태국, 인도의 병원들이 의료관광의 대표적 병원들로 나타나고 있음. 중개기관이나 정보매체들이 활발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거나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의료서비스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 언론매체의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긍정적이어서 의료관광에 대한 선진국 고객들의 선호를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음.

○ 외국정부의 의료관광 진흥

- 의료관광의 전 세계적인 발전과 의료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싱가포르와 태국은 의료관광을 전략적인 수출산업으로 인식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싱가포르는 2002년 의료서비스 산업전략화 보고서를 제출한 후 “Singapore Medicine”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음.
- 태국 역시 2003년 초 상무부가 “Thailand as a excellent international center for healthcare”정책안을 내각에 상정하였고 2004년 6월 이를 비준하였음.
- 한국은 2006년부터 의료서비스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영리자본의 제한적 참여, 의료서비스의 광고허용, 병원의 네트워크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계획을 세움. 한편 서울시는 특별히 성형외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만들고 외국인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산, 대구, 제주 등 지방정부들도 의료관광을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각 지역적 장점이 있는 의료분야에서 외국인을 유치하려 하고 있음.

II. 의료관광 정책 및 현황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시장의 과잉해소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제도개선, 국가별 유치전력,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방안을 내놓음.
- 2008년 6월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유인·알선의 허용 및 부속시설로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될 예정임.
- 법무부는 외국인이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도록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하였음.

○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 보건복지부는 2007년 초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설립하였고 여기에 약 30개의 병·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였음. 협의회는 마케팅을 위해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고 외국 언론, 의료인, 알선기관을 초청하여 국내 의료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음.
- 현지설명회 및 홍보전과 더불어 다국어 홈페이지(www.koreahealthtour.co.kr)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현황

-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을 전략상품으로 정하고 해외사무소와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7년 5월 4일 미국 LA에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 27개 협의회 회원 의료기관과 국내여행사, 한국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석함.
- 2007년 9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와 공동으로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의료 관광 팸투어 및 세미나 개최함.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의 주요 의료전문 에이전트, 보험사, 미용 및 건강전문 잡지사, 여행사 등 20명 초청하여 진행함. 2박 3일 동안 한국국제의료서비스에 소속된 29개의 병원을 직접 탐방하고 의료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함.

○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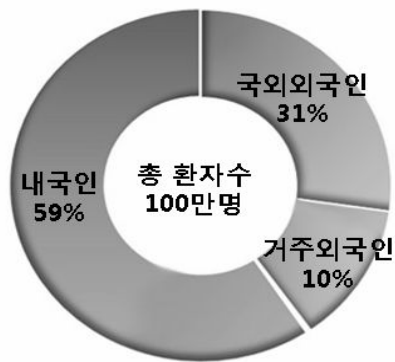
-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3회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International Medical Travel Conference: IMTC)’의 서울 유치에 성공하였고 약 30개국에서 참가 예정임.
- 국내 우수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전 세계 의료관광 동향 파악, 신규시장 개척 및 아시아 주변 경쟁국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III. 해외병원 의료관광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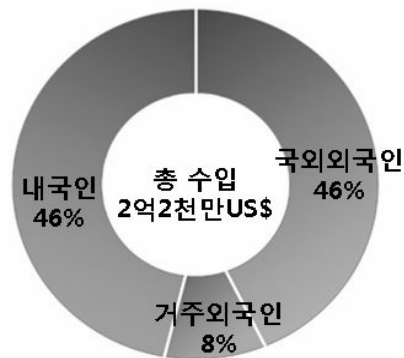
○ 방콕의 범룽라드 병원(Bumrungrad Hospital)

- 2002년 아시아 최초 JCI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05년 미국 뉴스위크에 의한 세계 10대 병원으로 선정됨. 연간 백만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며, 이중 절반 가까운 43만 명이 190여개국에서 온 국제환자임.
- 900명 이상의 의사 및 치과의사와 800명의 간호사를 포함하여 총 2,9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상당수가 선진국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음.

- 2006년 범롱라드의 내·외국인을 합한 총 환자수는 1,065,566명으로 내국인 631,495명, 거주외국인 106,622명, 국외외국인 327,44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동남아 지역의 환자는 9만명, UAE의 환자는 4만명 등으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06년 총 수입은 2억2천만 US달러로 46%가 내국인, 54%가 외국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외국인 수입은 국외외국인 46%, 거주외국인 8%로 구성됨. 총 환자수에서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환자가 내국인 환자에 비해 높은 수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 환자 구성(2006)



〈그림 2〉 수입 구성(2006)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범롱라드의 외국인 외래환자 수는 29만명에서 4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06년 41만8천명 정도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007년 41만3천명으로 소폭 감소함.

〈표 1〉 범롱라드병원 외국인 외래환자 수 추세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외래환자 수	294,643	353,660	378,613	417,906	413,203

- 외국인 입원환자는 외래환자에 비해 수가 적은 편이나, 역시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최고치를 보이다 2007년 다소 감소함. 외국인 입원환자 수는 2007년 13,195명으로 집계됨.

〈표 2〉 범룽라드병원 외국인 입원환자 수 추세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입원환자 수	9,233	11,726	12,946	14,048	13,195

- 외국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33%였으나 2007년에는 41%로 점차 증가함. 국제환자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3년 41%에서 2007년 55%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외국인환자가 줄었음에도 수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표 3〉 범룽라드병원 국제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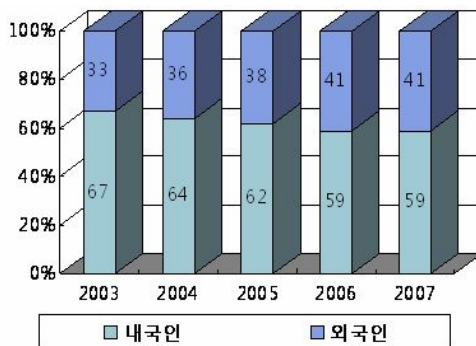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내국인	67	64	62	59	59
외국인	33	36	38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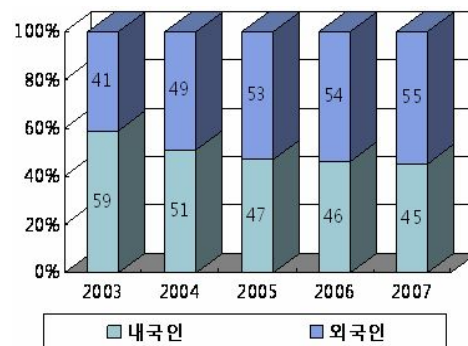
〈표 4〉 범룽라드병원 국제환자 수입 비율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내국인	41	49	53	54	55
외국인	59	51	47	46	45



〈그림 3〉 국제환자 비율 추세



〈그림 4〉 국제환자 수입 비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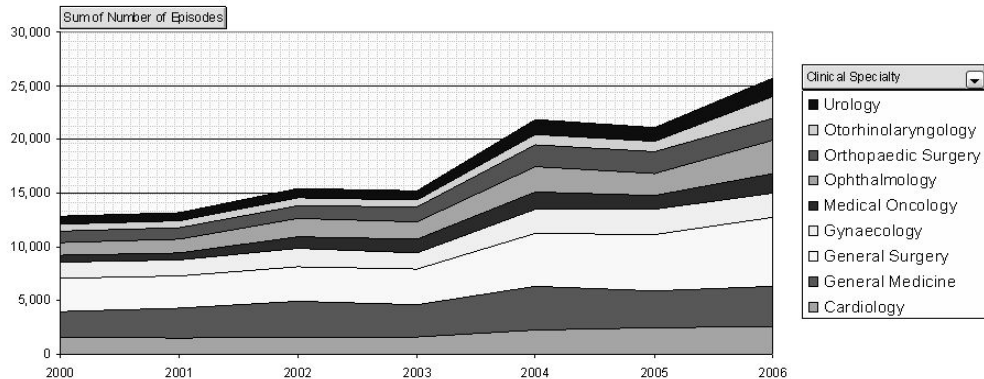
○ 파크웨이 헬스케어 그룹(Parkway Healthcare Group)

- 싱가포르 최대 병원그룹으로 2007년 그룹 전체 매출액이 869백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함. 싱가포르 내에 마운트엘리자베스(Mount Elizabeth), 글레너글스(Gleneagles), 이스트쇼어(East Shore)의 3개 병원을 소유하고 있음.
- 미국 병원경영협회가 인정한 세계 10대 병원의 하나로, JCI인증 취득하고 2003년과 2004년 아시아 최우수경영상 수상.
- 싱가포르를 찾는 외국인환자의 1/2이 방문하는 국제병원으로, 2005년 전체수입의 40%가 외국인환자 수입이었으며, 외래환자는 140,000명, 입원환자는 14,000명이었음.
- 파크웨이그룹의 국가별 입원환자 및 당일수술 국제환자 추세는 아래와 같으며, 총 환자수는 2006년 기준 32,444명임. 전체 65% 이상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환자이며, 베트남, 남아시아, 중동환자 증가 추세임.

〈표 5〉 파크웨이그룹 국제환자 수(입원환자 및 당일수술)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주, 뉴질랜드	306	377	448	433	575	775	857
브루나이	226	253	320	299	247	220	273
캄보디아, 미얀마				-	52	493	682
유럽(프랑스, 독일)				-	45	530	480
홍콩, 대만	64	74	81	59	93	95	114
인도					56	457	647
인도네시아	8,113	8,458	10,034	9,885	14,886	14,506	17,335
일본, 한국	322	385	427	597	813	840	720
말레이시아	3,364	3,236	3,819	2,939	3,918	3,209	4,320
중동(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	67	389	635
미국, 캐나다	711	770	919	888	1,174	1,437	1,239
Other nationalities	2,821	2,657	2,921	3,144	4,280	2,006	1,765
필리핀	222	275	307	332	426	384	504
중국	-	-	-	-	59	361	629
남아프리카	-	-	-	-	5	42	37
남아시아(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	101	870	1335
태국	76	77	71	62	80	84	98
베트남	-	-	-	-	26	328	774
합계	16,225	16,562	19,347	18,638	26,903	27,026	32,444

-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심장과와 안과이며, 암과 정형외과가 증가하는 추세임.
- 14개국에 마케팅 사무국을 설치함. 외국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접근할 수 있음.



〈그림 5〉 파크웨이그룹 진료과별 환자 수

IV. 국내병원의 의료관광 현황

-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외국 인환자 수를 추정한 결과 총 15,868명으로 나타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추정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수요는 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년 뒤인 2010년엔 약 2배인 6만명, 이후엔 매년 2만명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2012년엔 10만명의 외국인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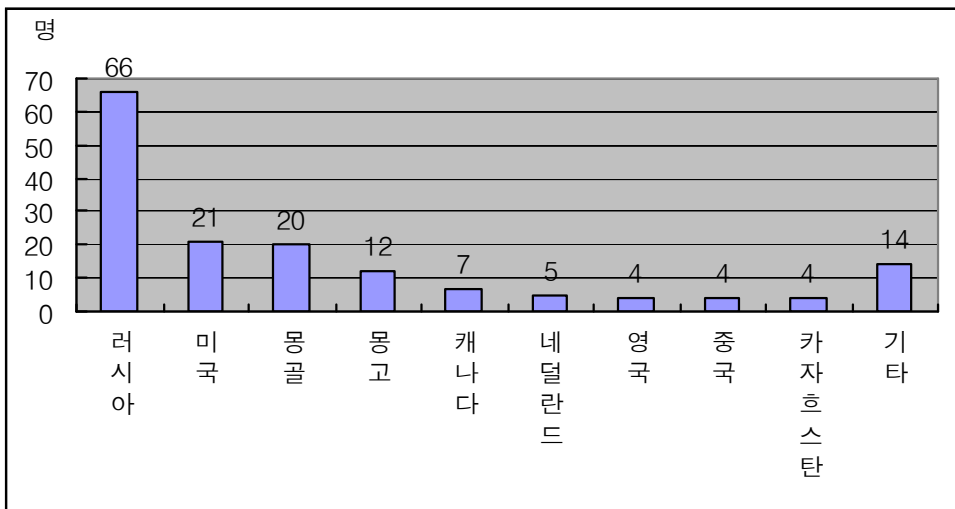
〈표 6〉 외국인환자 수 추정 및 경제적 효과

구분	목 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환자수(명)	15,868	30,000	45,000	60,000	80,000	100,000
진료수입(백만원) ¹⁾	59,298	112,108	168,163	224,217	298,956	373,695
총유발효과(백만원)	104,009	196,638	294,957	393,277	524,369	655,461
관광수입(백만원)	43,677	82,575	123,863	165,150	220,200	275,250
합계(백만원)	147,686	279,213	418,820	558,427	744,569	930,711
고용창출(명)	1,162	2,197	3,296	4,395	5,860	7,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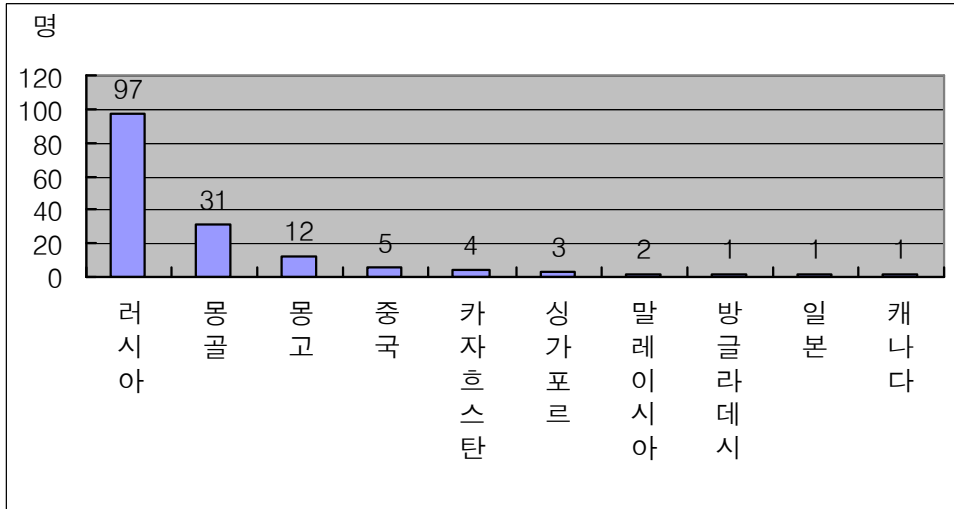
주: ¹⁾ 진료수입은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의료기관의 07년 해외환자 1인당 평균 진료액(= 3,736,949원) × 환자수

○ 삼성서울병원

- 삼성서울병원은 몽골과 러시아 연해주의 체류외국인과 현지 부유층을 상대로 수술 및 중증환자 유치를 하고 있음. 이들 지역과의 거리 때문에 동남아, 홍콩 병원에 비해 삼성병원은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삼성병원은 세브란스병원과 더불어 거주외국인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병원임.
- 삼성서울병원의 2007년 국외거주 외국인환자는 외래환자 157명, 입원환자 69명을 합한 226명으로 나타남. 국적별 외래환자는 러시아가 66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21명(13%), 몽골 20명(13%), 몽고 12명(8%) 순임. 거주국가별 외래환자는 러시아가 97명(62%)으로 역시 가장 많았으며, 몽골 31명(20%), 몽고(8%), 중국(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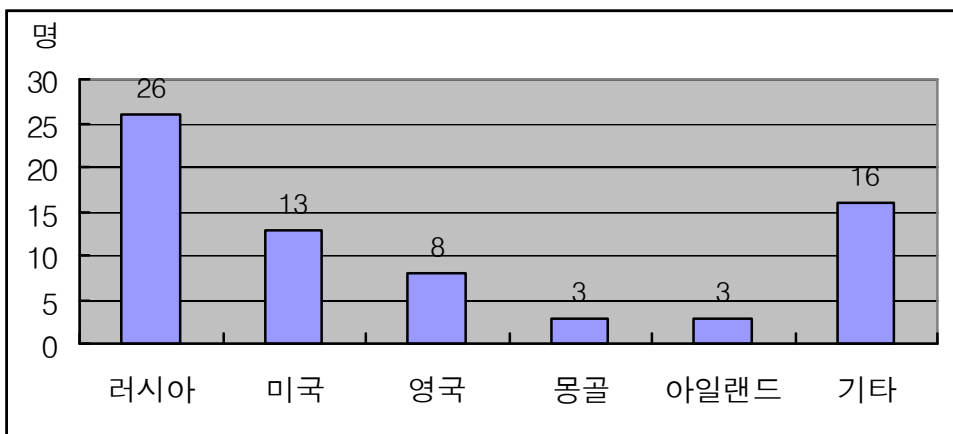


〈그림 6〉 삼성서울병원 국적별 국외외국인 외래환자 수(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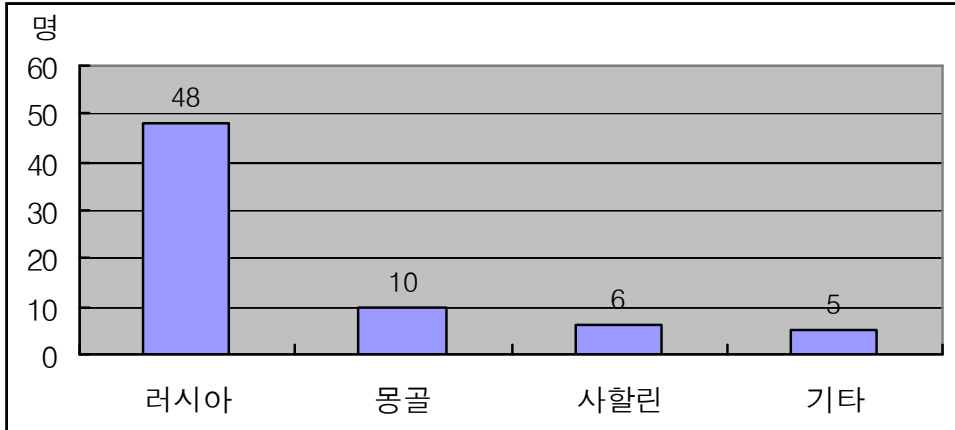


〈그림 7〉 삼성서울병원 거주국가별 국외외국인 외래환자 수(2007)

- 국적별 입원환자는 러시아가 26명(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3명(19%), 영국 8명(12%), 몽골 3명(4%), 아일랜드 3명(4%) 순임. 거주국가별 외래환자는 러시아가 48명(70%)로 가장 많았으며, 몽골 10명(15%), 사할린 6명(9%) 순이었음.



〈그림 8〉 삼성서울병원 국적별 국외외국인 입원환자 수(2007)



〈그림 9〉 삼성서울병원 거주국가별 국외외국인 입원환자 수(2007)

- 국외외국인과 거주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환자 수는 15,658명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미국 7,354명(47%), 프랑스 1,097명(7%), 영국 330명(2%), 일본 295명(2%) 순임. 한국교포가 1,065명으로 전체 7%를 차지함.
- 외국인수가로 계산된 연간 외국인 외래환자 수는 총 12,022명이며, 입원환자는 2,352명으로 나타남. 외국인환자 외래의 진료비는 일당 22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진료비는 일당 1,222,000원으로 나타남.

〈표 7〉 삼성서울병원 외국인 평균진료비 (2007)

(단위: 명, 천원)

구분		환자수(명)	일당진료비(천원)
외래	연인원	12,022	221
	연인원	2,352	1,222
입원	실인원	444	
	평균재원일수	5.3	

○ 청심국제병원

- 청심국제병원은 2007년 한 해 동안 2만4천명의 국외 환자를 유치했는데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중국 순으로 나타남. 청심국제병원 역시 일본 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외래환자 중 국내외국인은 2,468명, 국외외국인은 8,608명으로 국외외국인 환자가 국내외국인 환자보다 약 4배 많았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국내외국인 4,047명, 국외외국인 6,136명으로 국외외국인이 약 1.5배 많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입원환자 중 국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산부인과로 나타났으며 국외외국인 역시 산부인과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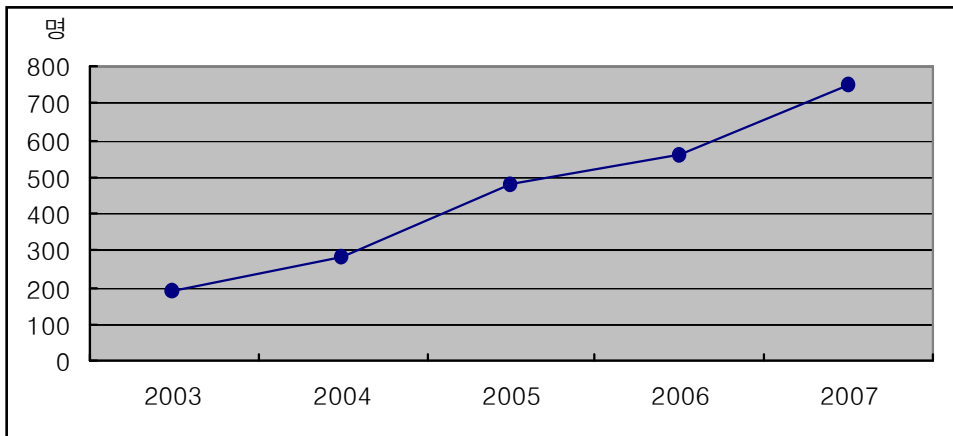
〈표 8〉 청심국제병원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통계 (2007)

진료과	외래환자		입원환자	
	국내외국인	국외외국인	국내외국인	국외외국인
내과	97	62	45	29
외과	158	201	127	290
정신과	119	70	979	726
내과2과	98	266	13	34
한방1과	382	560	396	1
한방2과	211	521	247	-
산부인과	1,068	713	1,316	1,390
종합검진	-	2,011	-	-
국제진료과	1,111	3,131	923	3,609
야간진료과	121	905	-	-
재활의학과	214	168	1	57
합계	2,468	8,608	4,047	6,136

주: 국내외국인: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료보험을 적용한 자
 국외외국인: 해외거주 및 외국인수를 적용한 자

○ 우리들 병원

- 2007년도 외국인 방문환자는 전체 5개 지점에서 총 751명, 입원환자 96명으로 2006년 대비 총인원수 34.8%, 입원환자수 29.7% 증가함. 외국인환자 실거주지 기재를 통해 총 291명(38.7%)이 외국에서 치료 목적으로 내한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10〉 우리들병원 연도별 외국인환자 추세

- 청담지점을 기준으로 전체 병원환자 중 외국인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음. 외래환자의 1인당 수입은 약 23만원, 전체 입원환자의 1인당 수입은 약 443만원이었으나, 외국인 외래환자의 1인당 수입은 43만원, 외국인 입원환자의 1인당 수입은 673만원으로 외국인환자의 수입이 국내의 1.5배~2배임.

〈표 9〉 병원 대비 외국인환자 수 및 수입비교표 (2007)

구분	전체		외국인환자	
인원	외래	102,017명	외래	576명(0.56%)
	입원	10,961명	입원	79명(0.72%)
수입	외래	23,431백만원	외래	245백만원(1.04%)
	입원	48,544백만원	입원	532백만원(1.10%)
합계	71,975백만원		776백만원(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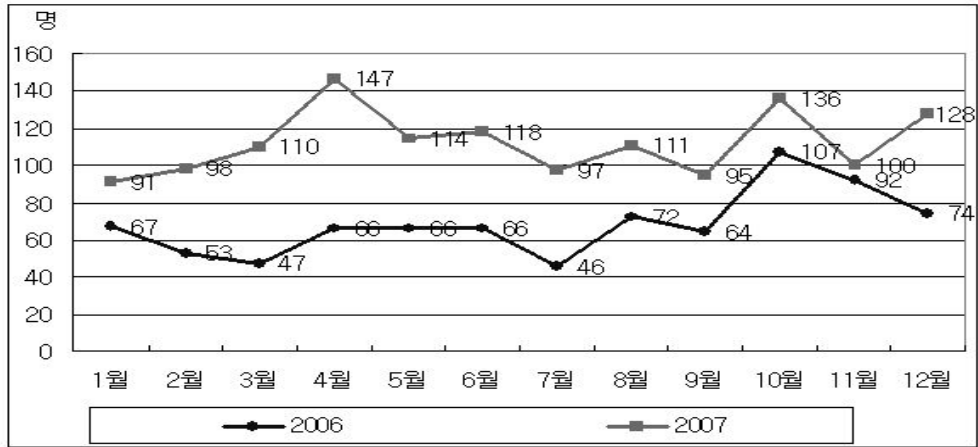
- 총 47개국에서 방문한 외국인환자 중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몽골의 상위 5개국이 전체의 79%를 차지함. 몽골 환자 중 33%가 수술환자로 나타나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술비율을 나타냈음.

〈표 10〉 외국인환자 상위 10개국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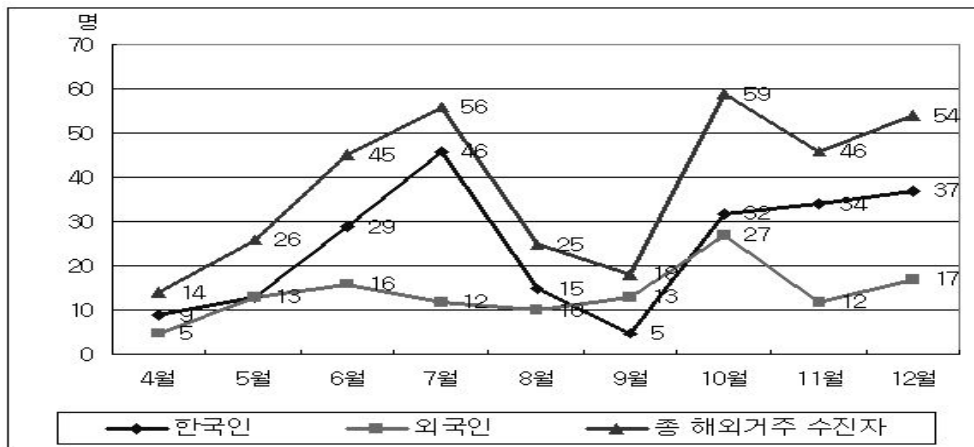
순위	국적	환자수	수술환자	수술환자 비율(%)
1	미국	276	23	8.3
2	중국	202	28	13.8
3	캐나다	57	8	14.0
4	일본	42	8	19.0
5	몽골	18	6	33.3
6	대만	16	5	31.2
7	뉴질랜드	16	2	12.5
8	호주	15	1	6.6
9	베트남	12	-	-
10	아르헨티나	8	-	-

○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 건강검진을 하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2007년 외국인환자 수는 총 1,345명으로, 2006년의 820명에 비해 약 1.6배 증가함.
-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해외 거주하는 환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쳐 총 325명이었으며, 이중 한국인환자가 220명으로 68%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환자는 125명으로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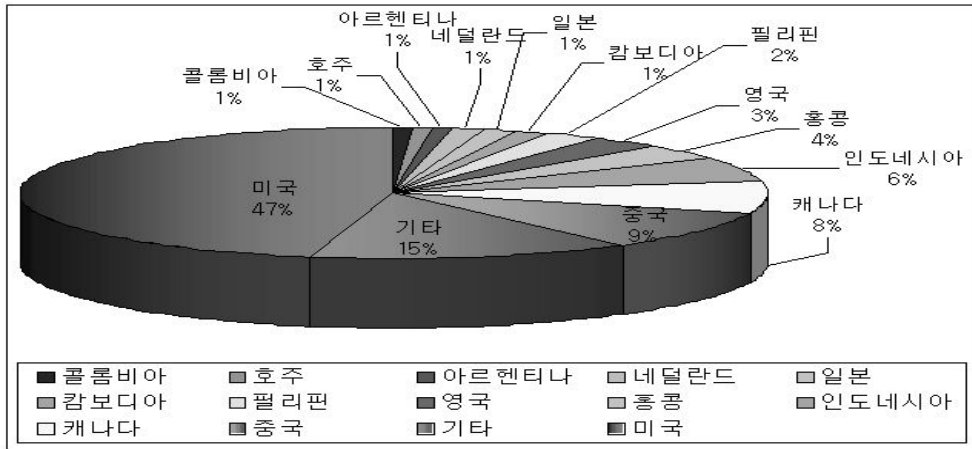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월별 총 외국인환자 추세



〈그림 12〉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월별 해외거주 환자 추세

- 외국인환자를 현 거주지별로 구분하였을 때, 미국이 47%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 하였으며, 중국 9%, 캐나다 8%, 인도네시아 6%, 홍콩 4%, 영국 3%, 필리핀 2% 순이 었음.



〈그림 13〉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해외거주 외국인환자 거주지별 분포

V. 정책적 시사점

- 국내의 의료관광은 초기단계이지만 국내 의료시장의 저변이 넓고 유능한 많은 의사들이 임상경험이 풍부함. 이러한 인적자원과 시장기반으로 인해 현재 의료관광이 발전한 동남아시아 주요병원에 비해 의료기술 수준은 오히려 높음 편임. 특별히 국내 일부 대형전문병원의 병상규모와 전문 치료센터, 의료수준은 범롱락 혹은 마운트 엘리자베스 병원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의료서비스를 공공영역의 규제는 의료관광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즉 영리병원의 금지, 당연지정제, 다인실 비율 규제, 건강보험의료수가의 통제 등은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료관광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서울시는 대형전문병원의 위치하고 있고 거주외국인과 방문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특별히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국 동북지방 등은 서울이 동남아 도시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한 의료관광은 유망함.
- 삼성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의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약 8백만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대부분 가족이 동반하기 때문에 서울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큼. 특별히 동남아 지역에 비해 우수한 암치료 경우 4~5개월 치료에 1~2억 정도를 지출하기 때문에 특화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의료관광은 외화획득효과가 크고 지역산업 및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이므로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음.